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음향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방안
(國立文化財研究所 所藏 音響資料의
保存管理에 關한 方案)

宋 珉 宣

(國立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

目 次

- | | |
|----------------|---------------|
| I. 머리말 | 가. 자료의 DB化 作業 |
| II. 音響 資料의 複製 | 나. 자료의 分類作業 |
| III. 音響 資料의 管理 | IV. 向後 推進 計劃 |

I.머 리 말

국립문화재연구소(國立文化財研究所) 예능민속연구실(藝能民俗研究室)에서는 음향(音響)·영상기록물(映像記錄物)의 보존(保存)과 관리(管理)를 위한 음향영상실(音響映像室)을 설치(設置)(1985년)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現在) 음향영상실(音響映像室)에서 보유(保有)하고 있는 자료(資料)로는 그 동안 전국의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녹음자료(錄音資料)¹⁾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기록영화(記錄映畫)Film 등²⁾이 있다. 이들 자료 중 일부가 열악한 보존환경(保存環境)과 전문담당자(專門擔當者)의 부재(不在), 그리고 자료(資料)의 노후(老朽)등으로 유착(癒着)·박락(剝落)하는 현상(現象)이 발생(發生)하여 자료의 훼손을 대비한 효과적인 보존관리가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더 이상 현 상태로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릴테이프 자료(資料) 1,040롤을 최우선으로 복제하므로써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릴테이프의 복제작업은 모니터링 작업(作業)을 통해 릴테이프에 수록된 음원들을 소악곡별(小樂曲別)로 Cutting한 뒤 그 소악곡을 주제별(主題別)로 편집하여 복제(複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복제는 자료의 보존이 반영구적이고 수록된 음원을 찾기가 쉬운 Compact Disc로 하였다.

릴테이프의 복제작업(複製作業)이 마무리되자 복제된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

1) 릴테이프, 카세트테이프, DAT(Digital Audio Tape)와 CD(Compact Disc) 등이다.

2) 映像資料로는 映畫필름과 비디오테이프(8m/m, 16m/m), Betacam 등이 있다.

고, 보유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겠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DBase 작업을 실행(實行)하였다. 이 작업은 자료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므로써 복제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DBase 작업에서 중요시되었던 것은 전통 음악에 대한 장르별 분류Code를 정하는 일이었다. DBase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전통음악 장르별 분류방안은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분류체계화를 이끈다는 의미인 만큼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련의 복제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분류하여 DBase 작업(作業)을 하면서 야기된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겨 음향자료(音響資料)의 보존관리(保存管理)에 활용하고자 한다.

II. 음향자료(音響資料)의 복제(複製)

예능민속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릴테이프 자료는 열악한 보존 환경으로 인해 자료의 훼손이 점차 심각해져갔다. 그래서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보존키 위한 방안이 대두되었고 이에 최신장비로 음원을 그대로 복제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CD로의 복제작업³⁾은 시작되었다. 또, 부수적으로는 자료관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 작업은 실시되었다. 소장 자료의 소악곡별 색인을 정리하여 그 수록내용을 확인하고 보유자료의 음악학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예능민속연구실(藝能民俗研究室)에서 소장하고 있는 릴테이프 자료는 1961년부터 1985년⁴⁾ 사이에 생산(生産)된 것이다. 1969년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연구실(文化財研究室)에 무형문화재계(無形文化財係)와 민속계(民俗係)가 신설(新設)되면서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업무(業務)를 담당(擔當)할 당시의 것이 146개, 1971년~1975년의 것이 446개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녹음된 것들이다. 1975년⁵⁾ 이후의 448개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소속기관(所屬機關)으로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가 신설(新設)되면서 예능민속연구실(藝能民俗研究室)에서 시행한 각종 현장 조사사업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이다.

릴테이프의 복제재료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음향 보존상태가 가장 좋다고 추천된 DAT와 CD중 선택하기로 하였다. DAT는 마그네틱테이프인 관계로 적절한 보존환경을 필요로 하고, 각 소악곡에 대한 검색도 CD보다는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자료의 보존이 반영구적이라는 CD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1995년까지 2개년에 걸쳐 복제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첫해인 1994년에는 534롤의 릴테이프를 377장의 CD로 복제(複製)하였고, 1995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269롤의 릴테이프 자료(資料)를 180장의 CD로 복제(複製)⁶⁾하였다.

3) 그 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했던 것을 1994년 9월에 특별예산을 확보하면서 복제작업은 시작되었다.

4) 연도별 릴테이프 생산 현황

연도	1961~1965	1966~1970	1971~1975	1976~1980	1981~1985	계
릴테이프	46개	100개	446개	429개	19개	1,040개

5) 1975~1985년도에 예능민속연구실에서 실시한 조사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李忠善 器樂曲調查(1975), 李龍雨 巫樂調查(1975), 奇昌洙 湖南左道農樂調查(1975), 李秀英 念佛調查(1975), 梁蘇云 黃海道民俗器樂曲調查(1975), 全羅南道 國樂實態調查(1976~1980), 韓愛順 관소리沈淸歌調查(1978), 姜順令 伽倻琴散調調查(1980), 任實 筆峰農樂調查(1980), 全羅北道 國樂實態調查(1981~1982), 三絃六角調查(1983) 鄉制줄風流調查(1984), 散調調查(1985)

1. 복제기간

복제는 제1차 년도(1994년)에는 1994.11.8~12.30까지 2개월 동안, 제2차 년도(1995년)에는 1995.10.4~12.11까지 2개월 동안 행해졌다. 릴테이프를 CD로 복제하는 데는 ① 음원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시간, ② Sonic Solution Program에 음원을 수록하는 시간, ③ 수록된 음원을 편집하여 CD에 복제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즉 릴테이프 60분을 CD로 복제해 내기 위해서는 그 3배에 해당되는 180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1차 년도(1994년)에 377장의 CD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최소 1,000시간 정도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이만큼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모니터링 요원이나 복제 담당업체에서 힘써 일해 준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나마 제2차 년도(1995년)에는 모니터링 작업과 음악장르별 편집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복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일이 쉽게 처리되었다.

2. 복제제작업체

복제작업은 CD 컷팅·마스터링 전문업체인 사운드비전에서 하였다. 복제업체를 선정할 당시, 그 대상 업체가 ① 전문음향기술(CD-Mastering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② 릴테이프를 CD로 복제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Sonic Solution Program)를 가지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래야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소악곡별 Cutting작업이 완료된 음원을 각각의 릴테이프에서 발췌해 내어 Sonic Solution Program에 입력한 뒤 그 음원을 음악 장르별 혹은 창자(연주자)별 편집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CD에 담아 내고 CD 커버에는 음반 제목(<표 1>의 대금독주 1)과 Track 목차(<표 1>의 분류 No.와 곡목)를 적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제업체에서 릴테이프를 복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㉞ 릴테이프의 원음을 100%로 복제하되 곡 중간 등에 삽입된 잡음은 최대한 제거한다.

여기서 잡음이란 대화, 박수 소리, 중간 음공백, Track Selector의 혼선 등을 말한다.

㉞ 편집된 내용대로 곡을 발췌, 취합하여 수록한다.

㉞ CD판에는 제목을, 그 커버에는 수록내용을 부착한다.

㉞ CD작업 목록(<표 1> 참조)을 만든다.

6) 릴테이프 1,040롤 중 상태불량분 26롤과 복본 211롤은 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태불량분 26롤은 보존이 요구되는 전통음악 녹음물이 아니거나 다른 음악 혹은 언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복본 211롤은 중복되는 자료이다.

기록된 시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소악곡마다 Cutting된 소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다.

- ㉔ 각 소악곡마다 음질상태를 점검하여 양호/불량 등으로 음질상태의 등급을 기록한다. 음질상태의 등급기록은 차후 곡 선별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㉕ 각 Cutting된 소악곡별 음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 이상 여부를 시간대별로 기록한다.

예) 영산재- 식당작법/0'30" 음이 흔들림/3'20" 음이 끊어짐/
10'30" 밑바닥에 깔리는 잡음이 있음 등

- ㉖ 각 음향자료 분류작업 및 상태점검 목록에는 다음 사항이 꼭 기재되도록 한다. (<표 2> 참조)

릴테이프관리번호/Track 번호/수록 음악의 정확한 소악곡 명칭/창자 혹은 연주자와 그의 반주자 이름/녹음한 날짜/녹음한 장소/소요시간(분)음원 내용의 정확한 모니터 소견 그리고 테이프에 녹음된 속도($3\frac{3}{4}$ 스피드 혹은 $7\frac{1}{2}$ 스피드 등)/Total 녹음시간

<표2> 음향자료 분류작업 및 상태점검 목록

릴번호	분류 번호	녹음제목	취입자	녹음일	녹음 장소	분	상태	CD 번호	비고
1-116	1-1	가사-수양산가	정경태 최영호(반주)	1974.8.27	국립박물관 강 당	8'46"	양호		
1-116	1-2	가사-양양가	"	"	"	7'36"	"		
1-116	1-3	가사-처사가	"	"	"	13'18"	"		

- ㉗ 릴테이프의 경우 오래된 것은 앞·뒷면에 녹음된 경우가 있으므로 앞면은 A, 뒷면은 B로 나누어 기록한다.
- ㉘ 자신이 모니터한 릴테이프의 음향자료 분류작업 및 상태점검 목록에 서명을 한다. 등

② 제2단계: Cutting된 소악곡 자료를 장르별로 모아 편집한다.

모니터링이 완료된 릴테이프들은 장르별 혹은 창자·연주자별로 취합하여 음반 제목을 주고 편집하였다. 그리고 CD에 수록될 Track의 순서를 잡은 후 총 소요시간을 적어 주었다. 즉 <표 1>의 문화재연구소 CD목록과 같이 릴테이프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소악곡(3-151, 117, 040, 156, 182B, 172, 5-129)을 장르별(대금산조)로 취합한 후 최대 수록 시간을 74분 이내로 (69:16) 한정하여 CD에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악곡의 장르별 성격 파악이 애매하거나 장르별 한 음반내의 취합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은 자문을 받아 확정하였다.8)

③ 제3단계, 제4단계: 편집된 내용대로 CD로 전환·복제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복

8)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이보형 문화재전문위원은 1970년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현장조사에서 직접 음악을 수집해 왔던 분이다. 또 그 자문내용은 매년 행할 때마다 자문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놓았다.

제완료된 CD의 목록을 작성한다.

(문화재연구소 CD목록, <표 1> 참조)

제2단계에서 편집된 릴레이프를 복제업체에게 인수증을 받고 인계하여 CD로 전환, 복제하도록 하였다. CD커버는 작성한 후 교정작업을 거쳐 완성이 되면 궁중음악과 정악은 노란색, 민속악은 푸른색, 무속음악과 불교음악은 자주색,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과 전수장학생발표회는 검정색으로 색분류하여 음악을 장르별로 찾아 보기 쉽게 하였다. 그리고 CD목록은 CD 1장마다 해당 목록을 각각 작성하였다. 작성된 목록은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CD번호를 붙였다.

III. 음향자료(音響資料)의 관리(管理)

1. 자료(資料)의 DB화(化) 작업(作業)

소장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제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DBase작업을 실시하였다. 각 Track별 소악곡 1개를 DBase의 기초단위(Record)로 잡아 분류번호/녹음제목/취입자/녹음일/복제일/녹음장소/소요시간(분)/CD제목/CD번호의 내용을 항목에 맞춰 입력하였다. DBase작업이 완료된 후 장르별 분류시안을 마련하여 고유 Code번호를 부여하고 Code번호순으로 소악곡을 Sort하였다.

<표3> DBase 입력 내용

분류번호	녹음 제목	취입자	녹음일	복제일	
61100002	판소리 춘향가 중 월매후원기도	조통달	03/21/71	11/25/94	
녹음장소	CD 제목	CD번호	분	릴번호	상태
국립극장	제1회 전수생 평가회 2-1	124	750	4-037	메모

CD 자료 DBase작업의 각 Field명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분류번호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분류방안 제1차 시안에 따라 입력되었다.(<표 5> 참조) ② 녹음제목은 기본적으로 소악곡명(<표 3>의 경우 월매후원기도)을 대상으로 하되 중주제나 중분류(판소리 춘향가)의 제목을 기입함으로써 녹음제목에서도 중주제나 중분류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자료이용자는 소악곡명은 Code번호를 통해, 중분류명은 DBase 녹음제목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③ 취입자는 창자와 반주자를 모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입자를 알 수 없으면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또, 취입자가 여러 명이어서 Field의 규정된 폭을 초과하게 될 경우는 그 폭에 수록 가능한 부분까지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상태의 Field에 실어주었다. ④ 녹음일은 기존 릴레이프 목록이나 릴레이프 케이스에 쓰여져 있는 날짜, 혹은 릴레이프에 음성으로 녹음되어져 있는 날짜에 의거하였다. 만약 녹음 해당 연도나 녹음 해당 월만을 알고 나머지 부분을 모를 경우 해당 월은 1월을 기준으로 잡고, 해당 일은 1일을 기준으로 잡았다. ⑤ 복제일은 복제업체에서 실제 복제작업을 한 날짜를 기록하였다. ⑥ 녹음장소는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였다. ⑦ CD제목은 장르별로 편집한 CD자료의 명칭을 적어 주었고 소악곡의 해당 Track번호를 달아 주었다(제1회 전수생 평가회 2-1은 제1회 전수생 평가회 2번째 CD의 1번 Track). ⑧ CD번호는 CD음반 제목을 가나다순으로 Sort하여 붙였다. ⑨ 소요시간은

분과 초로 기록하였다. 다만 Field의 형식을 숫자형으로 잡았기 때문에 <표 3>에서 처럼 소요시간 7분 50초는 750으로 기록하였다. ⑩ 릴번호에는 수록 릴의 관리번호를 적어 주었다. ⑪ 상태Field는 그 형식을 메모형으로 하여 해당 Track 음원의 상태(양호/불량)와 음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 이상여부를 기입하였다. 이외에도 각각의 Field 폭내에 수록되지 못한 다른 Field의 정보를 실어 주었다. 이 작업은 1996년 6월 제1차 분류시안의 Code번호순으로 Sort된 총 3,395항목으로 1차 완료되었다.

<표4>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자료(3,395항)의 분류별 백분율

분류코드	항 목	수량	백분율	분류코드	항 목	수량	백분율		
0총설		-		7민속악 -기악	70 총설	-			
1제례악	10 총설	1	1.21	8의식음악	71 산조	146	10.31		
	11 종묘제례악	35			72 시나위	38			
	12 문묘제례악	2			73 농악	106			
	13 경모궁제례악	2			74 향제줄풍류	3			
	14 제례악 기타.	1			75 향제대풍류	-			
	41	76 삼현육각	50						
			77 기타		7				
2연례악	20 총설	1	7.16	9연희 및 기타	80 총설	-	10.93		
	21 궁중거상음악	119			81 경제불교음악	129			
	22 궁중정재음악	29			82 영제불교음악	35			
	23 민간거상음악	-			83 완제불교음악	-			
	24 무용반주음악	94			84 화청과 염불	44			
	243	85 무속음악	163						
3행악	30 총설	-	1.06						
	31 취고수음악	19			90 총설	-		7.28	
	32 세악수음악	17			91 탈놀이	-			
	33 저동음악	-			92 굿놀이	-			
		36		93 민속놀이	125				
		94 창우정단 광대놀이	7 14						
4풍류방음악 -정가	40 총설	-	15.41	95 남사당놀이	21	7.28			
	41 가곡	386		96 대담	54				
	42 가사	85			26				
	43 시조	28			247				
	44 기타	24							
		523							
5풍류방음악 -줄풍류	50 총설	1	3.80						
	51 영산회상	79		궁중음악	320	9.43			
	52 천년만세	8		풍류방음악	652	19.20			
	53 청성자진한일	12		민속악	1,805	53.17			
	54 보희자	29		의식음악	371	10.93			
	129		연희 및 기타	247	7.28				
6민속악 -성악	60 총설		42.86	총 계	3,395	100.00			
	61 관소리	369							
	62 단가	51							
	63 병창	93							
	64 민요	680							
	65 서도	103							
	66 잡가	97							
	67 잡가(일창)	62							
	1,455								

<표4>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자료(3,395항)의 분류별 백분율

Sort 결과 소장자료의 장르별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었는데 민속악이 1,805항으로 53.17%, 풍류방음악이 652항으로 19.20%, 의식음악이 371항으로 10.93%, 궁중음악이 320항으로 9.43%, 연희 및 기타항목이 247항으로 7.28%를 차지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예능민속연구실에서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반이상이 민속악 계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속악 중에서는 민요가 680항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판소리(369항), 산조(146항)순이며, 풍류방음악에서는 가곡(386항)이 제일 많다. 의식음악은 무속음악이 163항으로 첫 순에 위치하며 궁중음악에서는 궁중거상음악⁹⁾이 119항을 차지하고 있다.

2. 자료(資料)의 분류작업(分類作業)

1) 제1차 분류시안

맨 처음 장르별 분류방안이 시도된 것은 1994년 10월 CD의 장르별 편집을 위한 것이었다. 그 대분류는 궁중음악, 정악, 민속악, 종교음악, 기타로 하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이 소분류를 하였다.

- ┌ 궁중음악: 제례악/연례악/군례악
- └ 정 악: 성악(가곡/가사/시조)/기악(영산회상)
- └ 민 속 악: 성악(판소리/단가/잡가/병창/민요)/
- └ 기 악(산조/시나위/농악/삼현육각/기타)
- └ 종교음악: 불교음악/무속음악
- └ 기 타: 탈춤/줄소리/꼭두각시

그러나 음향자료를 DBaes화 해 나가면서 CD의 장르별 혹은 창자(연주자)별 편집을 위한 분류만이 아닌 자료 검색에 유용한 DBase화를 위한 소악곡별 분류방안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소악곡을 근거로한 장르별 분류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제1차 분류시안¹⁰⁾은 한국 전통음악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소장 CD자료의 특수성과 DBase화 할 때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분류하였다.

그래서 음악의 용도에 따라 크게 9개 항목으로 대분류하였으며 사용 용도에 맞춰 아래와 같이 세분하였다.

- ┌ 제 려 악: 종묘/문묘/경모궁/기타 제례악
- └ 연 려 악: 궁중거상/궁중정재/민간거상/무용반주음악
- └ 행 악: 취고수음악/세악수음악/거등음악
- └ 풍류방음악- 정 가: 가곡/가사/시조/기타(시창 및 송서)
- └ 풍류방음악- 줄풍류: 영산회상/천년만세/청성자진한잎/보허자
- └ 민 속 악- 성 악: 판소리/단가/병창/민요/좌창/입창
- └ 민 속 악- 기 악: 산조/시나위/농악/향제줄풍류/향제대풍류/삼현육각
- └ 의 식 음악: 경제/영제/완제불교음악/화청과 염불/무속음악
- └ 연 희 및 기 타: 탈놀이/굿놀이/민속놀이/창우집단광대놀이/남사당놀이/대담

9) 궁중거상음악은 여민락, 낙양춘, 보허자, 수제천, 평조희상, 관악영산회상 등을 말한다.

10)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류시안은 1995년 10~12월에 권도희(서울대 국악과 대학원)가 집진적으로 정리하다가 1996년 이후에는 장휘주(서울대 국악과 대학원)가 맡아서 소악곡별 장르 분류를 정리해 주었다.

<표5> 000-000-00의 수록 내용

\분류Code	1	2	3	4	5	6	7	8
대분류명								
제례악	1	대주제	큰악공명	0	0	0	소악곡	
연례악	2	대주제	큰악공명	0	0	0	소악곡	
행악	3	대주제	큰악공명	0	0	0	소악곡	
풍류방음악 (정가)	4	대주제	우/계면	악기별	0	0	소악곡	
풍류방음악 (줄풍류)	5	대주제	분류곡	0	0	0	소악곡	
민속악(성악)	6	대주제	곡명 지역	0	0	0	소분류	소악곡
민속악(기악)		대주제	악기 지역	사람(유파) 시·군	0		소주제	소악곡
의식음악		대주제	대주제 지역	중주제 군	소주제 굿용도-명			소악곡
기 타		대주제	대주제	중주제	곡명			소악곡

또 각 항목에 해당되는 분류Code는 000-000-00(123-456-78)과 같이 8개 단위로 분류한 후 각각의 해당 음악에 고유 Code번호를 부여하였다. 장르별 분류Code 8단위의 수록내용은 <표 5>, <표 6>과 같다.

<표6> 8단위 수록 내용 사용예

분류Code	1	2	3	4	5	6	7	8
단위내용	대분류	대주제 혹은 대분류	큰 악곡 혹은 지역·대주제	중주제·소주제 또는 시·군, 유파, 악기			소악곡명	
고유Code번호	6	4	2	0	1	5	0	1
강원도 명주군 시집살이 노래	민요		강원도	명주군		부녀요	시집살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류시안은 음악용도별로 접근한 것이므로 한 소악곡이 2개 이상의 사용 용도를 가질 경우에는 제1용도를 기본 용도로 잡아 기준 분류Code 하나를 부여해 주고 나머지 제2, 제3의 용도에는 기준 분류Code를 참조하라고 명시해 주었다. 예를 들어 수제천의 경우 궁중거상음악, 궁중정재음악, 거등음악으로 모두 사용되는데 기본 용도를 ① 궁중거상음악(214-000-01)으로 정하고 나머지 ② 궁중정재음악, ③ 거등음악은 다음과 같이 궁중거상음악의 해당 Code번호를 보라고 하였다.

<예 1> 수제천의 용도 3가지

- ① 연례악- 궁 중 거 상 음악- 수제천(분류Code: 214-000-01)
- ② 연례악- 궁중정재음악- 반주음악- 수제천(214-000-01을 참조)
- ③ 행 악- 거 등 음악- 수제천(")

또, 각 단위의 분류Code마다 총설(00)을 두어 분류항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넣기 힘든 것,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넣었다(<예 2> 참조). 그리고 Track 하나에 소악곡 1곡 수록을 기본으로 하나 소악곡 2개 이상이 연속하여 수록되었을 경우에는 각 소악곡이 소주제(000-000)의 50%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류Code대의 총설(000-000-00)에, 30%이하일 경우에는 각 첫 소악곡 분류Code에 넣었다. <예 3>을 보면 상영산의 경우 군악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총설(215-000-00)에, 세영산까지만 포함하고 있으면 상영산(215-000-01)에, 상영산과 수제천처럼 대분류상의 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궁중거상음악의 총설(210-000-00)에 넣었다.

<예 2> 각 단위별 총설

- ① 대분류의 총설: 0-00-000-00
- ② 1. 제례악의 총설: 10-00-00-00
- ③ 11. 종묘제례악의 총설: 110-000-00

<예 3> 상영산 수록의 예

- ① 평조희상 중 상영산~군악(215-000-00 총설)
- ② 평조희상 중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215-000-01 상영산)
- ③ 평조희상 중 상영산, 수제천(210-000-00 궁중거상음악 총설)

이외에 소악곡의 명칭은 원 녹음 당시에 기록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곡의 경우에서처럼 편수대엽, 환계락, 편락, 반엽 등이 반우반계와 계면 등으로 혼합되어 기록되어 있던 것을 반우반계로 통칭하므로써 소악곡명의 통일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민요의 경우 전문 예능인의 순수음악과 비전문인의 비순수음악을 나누어서 각 지역 토속민요조사에서 불러진 통속민요는 조사지역 민요의 잡요Code(641-01-8-00)에 넣었고 전문 예능인이 부른 통속민요는 각 지역 총설의 잡요Code(641-00-8-00)에 넣었다.

그러나 DBase작업을 위한 분류시안 작업이 진행되면서 예능민속연구실의 소장 자료만이 아닌 한국 국악계 전체를 아우르는 분류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사계의 관련학자들을 초청하여 분류시안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한국 전통음악 분류시안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¹¹⁾하였다.

이 회의에서 첫째, 제시된 국립문화재연구소 분류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① 음악의 용도별 분류는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민속악, 기타 4가지로 규정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마련한 분류방안은 음악의 용도별 분류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법으로는 각 악곡의 음악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9개 항목으로 분류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류방안을 따르되, 전체적인 틀은 음악적인 차이에 의거해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민속악, 기타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기존의 대분류는 제례악/연례악/행악/풍류방음악- 정가/풍류방음악- 줄풍류/민속악- 성악/민속악- 기악/의식음악/연회 및 기타의 9개 항목이었다. 이 중 제례악/연례악/

11) 1996. 7. 18일에 이보형(문화재전문위원), 이성천(국립국악원 원장), 황준연(서울대 국악과 교수)가 모여 회의를 하였다.

행악이 의식음악과 상충되므로 제례악/연례악/행악은 궁중의식음악으로 분류하고, 의식 음악은 민간(또는 민속)의식음악으로 명칭을 정정하기로 하였다.

③ 수정안 ②에 의거하여 대분류를 통합할 시 연례악은 궁중거상/민간거상/궁중정재/민간정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 모두를 궁중의식음악으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거상은 민속악- 기악- 삼현육각과 함께 분류하고, 민간정재는 연희 및 기타에 무용항목을 만들어 분류하기로 하였다.

④ 기존 대분류의 명칭 중 풍류방음악- 정가/풍류방음악- 줄풍류는 그 명칭을 풍류방 음악- 성악/풍류방음악- 기악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정가/줄풍류는 그 명칭이 불분명하고, 또 정가/줄풍류보다는 성악/기악으로 하는 것이 민속악- 성악/민속악- 기악과도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⑤ 9개의 대분류 다음의 대주제에 해당되는 분류Code가 너무 많아 각 장르의 해당 10진분류법을 넘는 것은 대분류로 독립시키고, 해당 분류Code가 너무 적은 대주제는 대분류에 통합시키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민요항(제1차 시안 64, <표 7>참조)은 제1차 분류시안에서 분류Code가 9개를 넘어서 서도(제1차 시안 65)까지 차지하게 되므로 제1차분류시안에서는 대분류 번호를 하나 따로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민요를 민속악- 성악- 민요(제1차 시안 64, 65)로 분류했던 것을 민속악- 성악 I - 판소리, 단가, 병창 등(제2차 시안 40~43)과 민속악- 성악 II - 민요, 잡가(제2차 시안 50~54)로 따로 대분류를 만들기로 하였다.

둘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음향자료 분류방안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에만 한정하여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국악계 전반에서 이용가능한 통합 분류방안이 되도록 활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 자문회의에서는 전통음악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제 관련 기관을 초청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류방안을 기초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¹²⁾하기로 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위 회의에 필요한 분류방안 제2차 분류시안을 재정리하고 분류시안 일러두기/100단위 분류Code내용/1000단위 분류Code내용을 정리하여 각 해당 기관 및 학자에게 제2차 자문회의 개최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정리 자료를 미리 발송토록 하였다.

2) 제2차 분류시안

수정·보완된 제2차 전통음악 음향자료 분류시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궁 중 음 악: 제례악(종묘/문묘/경모궁)/연례악(거상음악/정재음악)/
| 행악(취고수음악/세악수음악/거등음악)
- └ 풍류방음악- 성악: 가곡/가사/시조/기타
- └ 풍류방음악- 기악: 영산회상/천년만세/청성자진한잎/보허자
- └ 민 속 악- 성악 I: 판소리/단가/병창
- └ 민 속 악- 성악 II: 민요/잡가
- └ 민 속 악- 기 악: 산조/시나위/농악/향제줄풍류/향제대풍류/삼현육각
- └ 민속악- 불교음악: 경제/영제/완제/화청과 염불
- └ 민속악- 무속음악: 무속음악

12) 1996. 8. 20일경중 기존 제1차 회의 참석자 외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 민요학회 등 관계기관 및 관계학자를 모시고 회의하기로 하였다.

ㄴ 연 회 및 기 타: 탈놀이/굿놀이/민속놀이/창우집단광대놀이/남사당놀이
민속무용/대담

특히, 무용반주음악의 경우 특정 춤에 사용되는 장단을 알 수 있을 때는 무용반주음악(651-000-00)의 장단 명으로 분류하였고 춤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속무용(960-000-00, <표 7>참조)으로 분류하였다. 또 농악은 당산굿/결립굿/두레굿/판굿/기타로 구분하고 이 명칭을 사용하되 지역에 따라 용도는 같으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따랐다.

이들 분류시안은 자문회의¹³⁾ 결과 첫째, 제2차 분류시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토론되었다. ① 소악곡명까지의 분류여부문제¹⁴⁾가 제기되었다. 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갈 경우 각 기관별 의견차가 발생하므로 최소단위까지 가지 말고 어느 선¹⁵⁾까지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악곡명 분류 반대측과 만약 소악곡명이 없고 그 이전 중간 단계까지 분류할 경우 곡명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용자가 찾아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소악곡명까지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기본적인 소악곡을 분류의 최소단위로 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소악곡명을 기준으로 분류해 두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3차 분류시안에도 역시 소악곡명을 근거로 분류하고 있다.

② 중간 단계 분류여부문제¹⁶⁾도 제기되었다. 최상위개념 다음에 오는 중간 분류단계를 생략하고 2~3단계에서 바로 소악곡명이 나오는 경우 음악 장르와 곡명을 잘 알고 있는 이용자는 찾고자 하는 곡명을 쉽게 찾아 들어가지만 곡명을 잘 모르는 이용자나 중간 분류단계 개념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¹⁷⁾는 찾고자 하는 소악곡을 쉽게 찾기가 어렵게 되므로 중간 단계 분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소악곡명을 찾을 수 있으며 궁중음악의 경우 중간 단계 분류가 너무 번거로우므로 중간 단계 분류를 생략하고 바로 소악곡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의견은 중간 단계 분류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상위에 들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제안되었다. 즉 악기별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인 지, 연주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인 지가 문제였다. 이 의견은 민속악-성악Ⅱ의 경우 기악반주/통속민요/토속민요/잡가로하여 민요의 기악반주를 독립시키는 것보다는 통속민요내에 기악

13) 1996. 8. 27일에 이보형, 이성천, 황준연, 김영운(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음악학과 교수), 강등학(민요학회총무, 강릉대학교 국문과 교수), 송혜진(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천승요(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 전통음악 자료 담당자)가 참석했다.

14) 소악곡명 분류 반대: 김영운교수, 소악곡명 분류 찬성: 이성천 원장두 견해는 모두 양쪽의 이론으로 보아 각각의 타당성이 있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본 분류근간은 소악곡명에 있으므로 소악곡명 분류 찬성 쪽으로 뜻을 삼았다.

15) 국립문화재연구소 분류시안의 경우로 살펴보면 분류Code 8단위를 6단위로 축약하고 최소분류단위 2단위는 생략하자는 것이다. <표 7>의 642-01-5-01에서 642-01-5까지만 Code번호를 부여하고 01의 시집살이는 생략하는 것이다. 각 유관기관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류방안을 이용할 때 각 기관별 최소 분류단위인 소악곡의 차별성을 고려한다면 소악곡의 분류는 각 기관에 맞게 짜고 중간 분류단계(642-01-5)까지만 살려 쓰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하겠다.

16) 중간 단계 분류 찬성: 강등학, 이보형, 중간 단계 분류 반대: 황준연

17) 예를 들면 한국의 행진 음악 전반을 알고 싶은 사람의 경우 중간 분류단계가 없다면 일일이 소악곡명을 찾아서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2차 분류시안의 13 행악은 131. 취고수 음악/132. 세악수음악/133. 거등음악의 중간 분류단계를 거친 후 131-000-01. 대취타/131-000-02. 취타열불/131-000-03. 취타굿거리/132-000-01. 취타/132-000-02. 길군악/132-000-03. 별우조타령/133-000-01. 여민락/133-000-02. 여민락만/133-000-03. 여민락령/133-000-04. 해령/133-000-05. 수제천/133-000-06. 동동으로 소악곡분류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중간 분류단계인 131. 132. 133이 생략되면 한국 전통음악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한국 행악 중 취고수음악, 세악수음악, 거등음악은 소악곡명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반주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 듯하며 풍류방음악- 성악의 가곡 경우에도 남녀창우조/남녀창계면조/남창우조.../기악반주에 앞서 가곡- 우조- 초수대엽- 남녀창/남창/여창/기악반주로 곡명이 먼저 나오고 연주형태를 나중에 나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또, 풍류방- 성악 중 시조의 경우도 지역별 분류인 경제/완제/영제에 앞서 평시조/중허리시조/중거시조...좁는시조 등 소악곡명이 먼저 나오고 지역명이 나오는 게 소악곡명으로 접근하는데 용이하리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립문화재단연구소의 분류시안은 우리 전통음악을 국내·외의 못사람들이 활용한다는 전제아래 제공되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간 분류단계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③ 민속악을 전문 예능인이 행하는 순수음악과 비전문인이 행하는 비순수음악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산조/시나위/판소리/통속민요는 전문 예능인이 행하는 무대용 음악으로, 기타 잡요/토속민요/농악은 비 전문인이 행하는 비순수음악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속악- 성악 I (순수음악), 민속악- 성악 II (비순수음악), 민속악- 기악 I (순수음악), 민속악- 기악 II (비순수음악)으로 나누었다. 그렇지만 음악은 시대에 따라 그 향유자나 전달자가 변하기 때문에 시점을 어디에 두고 순수음악과 비순수음악을 구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즉, 전통음악을 현재에 행해지는 음악으로 보느냐 아니면 전통사회의 역사적 문화의 소산으로 전승되는 음악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규정되어야 했다. 여기에서는 전통음악을 우리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자리매김하기로 하였다.

④ 현대 창작곡의 분류문제도 제기되었다. 현대 창작곡은 한국 음악 분류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나 양도 엄청나고 현 국립문화재단연구소에는 극히 일부만을 소장하고 있는 관계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국립문화재단연구소의 분류방안은 한국 전통음악 분류방안으로 그 내용을 한정하고 창작국악음악은 창작국악 분류방안을 국악창작회에서 따로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립문화재단연구소의 분류방안에도 9. 연희 및 기타에 창작국악 분류Code(제3차 시안 98. 기타항)를 따로 만들어 현대창작곡/사물놀이/창극/신작 판소리/기악 창작곡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두기로 하였다.

⑤ 민요에 대한 분류의 경우 제1차 시안의 민요 분류는 분류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노동요의 분류가 미흡하여 의식요, 유희요, 잡요의 성격도 애매한 상태이므로 중간 분류단계의 분류내용과 소악곡명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민요를 노동요/의식요/유희요로 구분하는 것이 어떠할 지가 제시되었다.

⑥ 기타 분류내용에 있어 궁중음악 중 행악에서 쉼타염불과 쉼타굿거리의 민간에서도 행해지는 것인데 이 경우 궁중음악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민속악- 기악- 향제대풍류/향제줄풍류는 민간에서 행해지기는 했지만 풍류방음악이므로, 풍류방음악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둘째, 국립문화재단연구소에서 마련할 전통음악 분류방안은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통일분류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그래서 이 분류방안의 활용범위가 각 유관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차 부연되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분류안은 대개 음반을 대상으로 분류한 한국십진분류법(KDC)¹⁸⁾이었으

18) 한국 전통음악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각 기관의 자료 분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며 기존 분류방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 편집한 목록집이 있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도입 또는 생산순으로 총망라해 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는 책¹⁹⁾이다. ②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²⁰⁾에서는 소장 국악자료를 편의상 정악분야는 아악/가곡·가사·시조로, 속악분야는 농악·무악·병창·산조·시나위/민요·범패·잡가·판소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①과 ②는 소장자료를 목록화한 것이고 전통음악의 분류에 대한 접근이 시도된 것은 ③ 1992년 한국국악학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악학 전국대회에서 이다. 이때에는 『한국음악의 분류법(1992)』이란 주제 아래 현행 국악 개설서의 측면, 문화적 측면, 분류의 역사적 변천, 전통음악에 대한 시대적·공간적 분류, 우리 음악 분류를 위한 시안 등의 제 문제²¹⁾가 토론되었다. 그러나 통일된 국악 분류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분류상 문제점만을 제시한 채 폐회되었다. 이외에도 ④ 국악 CD음반 분류를 위한 시안²²⁾과 각종 재질별 음향자료의 목록을 다룬 자료 소개²³⁾가 몇 개 보인다. 일련의 이러한 분류방안 제안과 정리작업에 근거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분류시안 작업은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위의 분류시안 내용들은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1996. 12월 개최 예정인 제3차 자문회의에서 다시 한번 검증과정을 거쳐 토론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변동된 분류시안의 내용은 <표 7>을 참조할 수 있다. 향후 개최될 제3차 자문회의에서는 ① 수정한 분류시안에 대한 확정 작업과 ② 민요와 불교음악을 음악적 특성에 맞춰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별·지역별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완결된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음악 자료 분류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분류방안 작업이 완료되면 이미 DBase입력된 CD자료 3,395곡에 수

-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집진분류법(KDC)에 의거하여 「國樂」대분류 아래 總說/國樂理論 및 技法/聲樂/唱劇/諸奏樂/韓國樂器/絃樂器/吹奏樂器로 세분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측에서는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 중 비도서자료용 형식을 국가표준으로 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 국립국악원: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으로 대분류한 뒤 전통음악을 다시 기악/성악으로 분류하고 기악에 들어가서는 곡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조사시 수집된 민요자료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놓았다.
 - 한국방송공사: 각 음반을 도입순에 따라 일련번호로 정리해 놓고 찾기 쉽도록 곡명/창자명 검색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 서울대학교 국악학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 도입순에 따라 일련번호로 정리해 놓았다.
- 19) 이 『무형문화재유관기관 녹음자료 종합목록(1982. 8)』은 무형문화재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대로 작성·제출한 목록을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에서 취합한 후 보완·편집하여 발간한 목록집이다. 문화재연구소,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방송공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립서울대학교, 추계예술대학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 2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 『계열화자료목록집(Ⅲ)- 국악음향·영상자료(1990. 9)』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자료관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획한 계열화자료 제Ⅲ권으로 1990년 9월 30일 현재 수집된 국악관계자료 중 음향자료 3,107곡 및 영상자료 245곡을 정리·수록한 것이다. 음향자료는 오디오테이프, SP, LP, CD음반 등에 수록된 국악관계자료를, 영상자료는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영화필름(16m/m)등에 수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1) 최종민, 현행 국악 개설서를 통해 본 분류방법의 모색
이보형, 문화적 측면으로 본 한국전통음악의 분류방법 서설
전인평, 우리 음악 분류법의 역사적 변천
백대웅, 전통음악의 시대적 분류와 공간적 분류
신대철, 우리 음악 분류를 위한 새로운 시안
황준연, 정악과 민속악의 특성의 논문이 『韓國音樂研究』 第20輯, 1992. 12, 韓國音樂學會에 실려 있다.
- 22) 정창관, 국악CD음반 분류를 위한 시안 I 과 현황 및 목록, 『韓國音盤學』 제4호, 1994. 에서는 국악 CD음반을 가야금병창, 기악, 단가, 무속음악, 무용음악, 민요, 배뱅이굿, 불교음악, 사물놀이, 산조, 영산회상, 정가, 정악, 판소리, 혼합, 기타, 창작국악, 창작판소리, 국악과 제즈, 창작기타 등 20장으로 전통음악을 분류하고 있다. CD 음반에 장르가 혼합된 경우㉠ 1순위: 2/3이상을 차지한 장르 우선, ㉡ 2순위: 1/2이상을 차지한 장르 우선, ㉢ 3순위: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타로 하였다.
- 23) 권도희, 서울음대 소장 유성기 음반 녹음테이프 목록, 『韓國音盤學』 제5호, 1995

정 Code번호를 부여하여 자료목록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표7) 제1차 제2차 분류시안 변동내용 및 제3차 분류시안

제1차 시안		제2차 시안		제3차 시안	
분류코드	항 목	분류코드	항 목	분류코드	항 목
0총집	0총집	0총집	0총집	0총집	0총집
1세제악	10 총집 11 종조제제악 12 종조제제악 13 정조종제제악	1총집악 -세제악 -일제악 -거중음악	10 총집 11 세제악 12 일제악 13 향악	1총집악 -세제악 -일제악 -거중음악	10 총집 11 세제악 12 일제악 13 향악
2연제악	20 총집 21 궁중거중음악 22 궁중정대음악 23 민간거중음악 24 유물민중음악	2총집악 -일악 -거중음악	20 총집 21 거중 22 거사 23 시조 24 기타	2총집악 -일악 -거중음악	20 총집 21 일악 22 거사 23 시조 24 기타
3향악	30 총집 31 해고유물악 32 세대유물악 33 거중음악	3총집악 -기악	30 총집 31 향악상 32 향악연계 33 향악의전향악 34 표제서	30 총집 -일악 I 31 향악상 32 연계 33 향악의전향악 34 표제서	30 총집 31 향악상 32 연계 33 향악의전향악 34 표제서
4종중음악 -일악	40 총집 41 거중 42 거사 43 시조 44 기타	40 총집 -일악 I 41 거중 42 거사 43 향악	40 총집 41 향악상 42 연계 43 향악의전향악 44 표제서	40 총집 -일악 I 41 향악상 42 연계 43 향악의전향악 44 표제서	40 총집 41 향악상 42 연계 43 향악의전향악 44 표제서
5종중음악 -출중음	50 총집 51 명산향악 52 명산향악 53 향악의전향악 54 표제서	50 총집 -일악 II 51 거중향악 52 향악연계 53 향악의전향악 54 향악	50 총집 51 명산향악 52 연계 53 향악의전향악 54 표제서	50 총집 -일악 II 51 명산향악 52 연계 53 향악의전향악 54 표제서	50 총집 51 명산향악 52 연계 53 향악의전향악 54 표제서

제1차 시안		제2차 시안		제3차 시안	
분류코드	항 목	분류코드	항 목	분류코드	항 목
6민중악 -일악	60 총집 61 민중악 62 민중악 63 민중악 64 민중악 65 민중악 66 민중악 67 기타(일정)	6민중악 -기악	60 총집 61 민중악 62 민중악 63 민중악 64 민중악 65 민중악 66 민중악 67 기타	6민중악 -기악	60 총집 61 민중악 62 민중악 63 민중악 64 민중악 65 민중악 66 민중악 67 기타
7민중악 -기악	70 총집 71 민중악 72 민중악 73 민중악 74 민중악 75 민중악 76 민중악 77 기타	7민중악 -출중음악	70 총집 71 민중악 72 민중악 73 민중악 74 민중악	7민중악 -출중음악	70 총집 71 민중악 72 민중악 73 민중악 74 민중악
8민중악	80 총집 81 민중악 82 민중악 83 민중악 84 민중악 85 민중악	8민중악 -무속음악	80 총집 81 무속음악 82 민중악 83 민중악 84 민중악 85 무속음악	8민중악 -무속음악	80 총집 81 무속음악 82 민중악 83 민중악 84 민중악 85 무속음악
9민중악 및 기타	90 총집 91 민중악 92 민중악 93 민중악 94 민중악 95 민중악 96 민중악 97 기타	9민중악 및 기타	90 총집 91 민중악 92 민중악 93 민중악 94 민중악 95 민중악 96 민중악 97 기타	9민중악 및 기타	90 총집 91 민중악 92 민중악 93 민중악 94 민중악 95 민중악 96 민중악 97 기타

<표7> 제1차제2차 분류시안 변동내용 및 제3차 분류시안

IV. 향후 추진 계획

이상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자료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시도된 자료의 복제와 DBase화 작업, 그리고 분류방안 내용을 살펴보았다. 복제를 실시한 결과 보유하게 된 CD 557장과 DBase자료 3,395항목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조사사업 당시의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자료에 대한 용이한 운영과 관리를 이끌어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자료 분류별 목록집』 발간, ② 희귀자료에 대한 보급용 CD 발간, ③ 전통음악 예능 보유자에 대한 전바탕 기록화 작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국 전통음악의 토대 정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자료 분류별 목록집』 발간

제3차 분류시안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분류방안이 완성되면 그 분류에 맞춰 3,395항의 DBase에 입력된 Code번호를 수정, 부여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자료 분류별 목록집』이 발간되어야 한다. 이 목록집이 발간되면 전통음악에 대한 분류방안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자료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희귀자료에 대한 보급용 CD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희귀자료를 보급용 CD로 발간하여 그 활용의 폭을 넓혀 나가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음악 자료는 우리 전통음악을 연구하고 계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보다 차원 높은 단계로까지 연구되고 나아가 국외에까지 우리 전통문화의 향기가 알려 질 수 있어야 진정한 문화재의 연구·보존·관리·계승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계 및 음악단체, 무용, 연극계, 방송, 언론계등에 소장자료를 공개하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보급용 CD의 제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급용 CD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자료 활용 시설 그리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예산의 확보 문제는 CD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문화산업의 일환인 기업 메세나등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확실한 스폰서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장 찍어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하여도 CD 음반을 일반레코드사에서 보급용으로 찍어낼 경우 각 CD(74분 소요) 1,000장당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²⁴⁾되기 때문이다. 또 다행히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여도 이 작업을 전담해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의 경우 전통음악을 담당하는 일반적 연구원이 없는 상태이다. 전통음악을 담당할 일반직 연구원의 인적 자산은 이 작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통음악에 관한 학술적·전문적인 지식은 CD음반의 복각이나 CD-Mastering작업, CD편집작업 그리고 해설문 작성 등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③ 전통음악 예능 보유자에 대한 전바탕 기록화 작업

이 작업은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과학적·사실적 기록화 작업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히 소명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향후 예술인(예능 보유자)들의 시대별 전승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고인이 된 명인이나 기록되지 못한 선율, 숨어 있는 재야 예능인 등을 단계적으로 기록화하여 한국 전통음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체계를 밝아 연구할 수 있도록 학술자료 집도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료의 보존과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한국의 민속문화 연구자료의 모듬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한국 전통음악 자료의 Bank System화하여 국내의 학계에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복원할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에는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홍보, 교류자료를 제공하여 연구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4) 보급용 CD를 제작할 경우 적어도 CD 20장 발간에 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게된다.